

칼빈의 견해에 따른 생활개혁 방안 연구

지도교수 : 김성봉 목사

이 논문을 졸업 논문으로 제출함

1996 년 12 월 27일

안양대학교 신학 대학원

신 학 과

김 진 용

김진용의 졸업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 김 서 홍 S.B.Kim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안양대학교 신학 대학원

1996 년 12월 27 일

## 감사의 글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 감사한다.

신학의 문에 들어선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교회라는 제도안에 들어온지 1년만에 시작된 신학이라는 학문은 모두가 생소했다. 성경적인 지식도 동료들보다 너무도 부족했다. 교수님들의 강의 내용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 해야 했다.

그러나 동료들의 격려가 지금의 나를 세워 가는데 큰 힘이 되었었다. 같은 처지에서 7여년을 함께 길을 걸었던 동료들(철진,수천,종수,형준)이야 말로 너무도 소중한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한 사람의 목사를 탄생 시키시는가 보다. 누구하나 등록금을 제때에 마련한 사람은 없었다. 특별히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사정이 달랐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목회의 길을 포기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는 영광의 길로 나의 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도가 있었지만, 졸업의 문턱에 다달았을 때에, 보잘것 없고 부끄러운 논문지도를 맡아 주신 김성봉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 주시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산산히 부수어 주셨던 사랑하는 교수님. 부흥회와 같았던 강의시간마다 감동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나의 스승님.

그리고 80평생을 사시면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셔서 먼 곳으로 떠나보내시며 눈물로 힘든 나날들을 지내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과 나의 옆에서 항상 나를 격려해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진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목 차

I. 서 론 -----	3
II.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견해 -----	5
1. 그리스도인의 삶 -----	5
2.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정 -----	7
3.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	8
4. 내세에 대한 소망 -----	11
5. 현세생활과 보조수단 -----	14
III. 현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진단과 생활개혁 -----	17
1. 그리스도인의 생활 진단 -----	18
1) 목회자와 목회 진단 -----	19
① 비 복음적 목회 -----	20
② 목적 성취의 목회 -----	21
③ 기업화 목회 -----	21
④ 비 전문인 목회 -----	21
⑤ 자기 중심적 목회 -----	22
⑥ 미 자격자의 목회 -----	23
⑦ 권징이 부재하는 목회 -----	24
⑧ 성직 매매의 목회 -----	24
⑨ 그 외 바르지 못한 목회 -----	25
2) 평신도의 생활 진단 -----	26
2. 그리스도인의 생활개혁 -----	27
1) 목회자에 대한 칼빈의 견해 -----	29
2) 목회자의 생활과 목회 개혁 -----	31
① 하나님의 목회 -----	31
② 성경에 근거한 목회 -----	32
③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목회 -----	34
④ 십자가를 지는 목회 -----	35
⑤ 협력하는 목회 -----	35
⑥ 선지자적 목회 -----	36
⑦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 -----	37
⑧ 선교하는 목회 -----	39
⑨ 그 외 올바른 목회 -----	40
3) 평신도의 직분에 대한 칼빈의 견해 -----	45
4) 평신도의 생활개혁 -----	46
① 자기자신을 아는 것 -----	46

② 청지기의 신분	-----	48
③ 성도가 함께하는 기독교적 민족통일	-----	49
IV. 결 론	-----	50

참고도서

## I. 서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어나온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못한가? 그것의 대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얻어낼 수 있다.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민족과 후손을 위해 수많은 박해와 괴로움을 겪었다. 그러한 사실을 캠벨(감부열)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시련을 겪어 왔다. 외국의 통치, 외국의 침략, 민족 상잔, 파괴, 피난, 기근, 동한, 궁핍, 박해, 천대 등... 그러나 기독교자들은 이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 왔다...”<sup>1)</sup>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외국 선교사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며, 현재의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이렇듯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살

---

1) 윌리엄 뉴튼 블레이, ‘속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김승태역. (서울:두란노, 1995), p.8.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했던 순수한 믿음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현대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본 받는다면 교회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물론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생활관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든 세속인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한국교회와 사회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전체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숨겨진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훌륭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서 빛어지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예를 들어 국가 고위직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대부분 교회의 장로나 집사, 정치가들 중에도 편법을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면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 경제, 사회 각 처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 다른 문화나 정치, 경제적 원인에서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발생처소는 교회 내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에 교단이 분열되고 신학교의 강단을 어지럽게 했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이 숨어 버리고, 말씀으로 인한 내실을 다지는 교육이 회피되어왔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는 성도들을 병들게 했고, 교회 건축이라는 빌미 아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한사람 한사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헌금을 많이 해서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고 복음을 싼 값에 팔아넘기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 해 왔다. 그 결과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술책

에 빠져 진실한 교회들이 숨겨지고 바르지 못한 교회들이 교권을 잡고 좌지우지 하는 현상까지 가져왔다.

이제는 진실한 교회들이 드러날 때이다. 말씀에서 떠난 교회들이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 올 때인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와 국가가 존재케 되고 사회의 변혁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우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경에 입각한 삶이 되어야 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경에 근거한 생활개혁을 위해 신학이 정립된 칼빈선생의 기독교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추고 살아야 할 생활개혁에 대한 견해를 배우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진단해 보며,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생활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칼빈의 견해

### 1. 그리스도인의 삶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교리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교본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면서 글의 내용에 대한 골자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받은 자녀의 자격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데 있다(갈4:5;벧후1:10).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여 많은 자극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열성이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토



대로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sup>2)</sup>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보편적인 준칙을 간략하게 규정해 놓는 것으로 만족해<sup>3)</sup>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가르침의 두가지 주요 측면은 우리 마음에 의로움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의로움에 대한 열성이 올바르게 유지되게 하는 규율을 제공하여 준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스러움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자신의 성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우리에게 주입되는 성스러움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강한 동기는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행한 구원의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유발하며, 말로써 끝날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관계되는 일이다.<sup>4)</sup>

빌헬름 니이젤은 칼빈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윤리적인 귀결은 성화 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의인 교리에서도 일어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내어준바 되었고 새로운 삶으로 갱생되었다는 사실에 못지 않게 우리의 윤리 생활에 대해서 강한 의미를 갖는다.”<sup>5)</sup>

우리는 이 세상의 예속과 자의의 중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증거한다. 여기에서 모든 협소함을 벗어 버리고 위로의 생활과 봉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sup>6)</sup>

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2) 칼빈, ‘기독교강요’, 김중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공역, (생명의 말씀사), 중권, p.192.

3) 위의 책, p.193.

4) 포드 루이스 베틀즈, 양 건, 강명희공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3), p.242.

5)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1), p.137.

6) 위의 책, p.139.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바울은 이르기를 그런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엡 4:22~24)라고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전적으로 올바르게 교회에 속할 수가 없고, 아무도 교회의 표준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거룩함의 표준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sup>7)</sup>

## 2.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

칼빈에 있어서 성화는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 혹은 세상 한 복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 바 하나님의 뜻(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생애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이다.<sup>8)</sup>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sup>9)</sup>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며, 더 이상 우리의 의지나 이성(理性)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의 이성을 제쳐두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단지 우리의 이성만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이성이 성령께 굴복하게 되면,

7) 조주석,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강요 요약’,(서울:나침판사,1989),p.122.

8) 이형기, ‘기독교 강요 요약’,(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6),p.282.

9) 칼빈, Op. cit.,p.200.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게 된다. 우리의 이성의 이러한 복종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자기부인을 이루게 한다.

바울은 디도서2:11~14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고무시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두 장애물, 즉 불경건과 이 세상 정욕을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근신하고’, ‘경건하다’는 세 가지 형용사로 묘사한다. 근신함이란 순결, 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정당하고 조심스런 사용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의로움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의미한다. 경건 함이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게 하는 것이며,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다.

세상의 번영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영리함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부와 존귀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도록 구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자기 부정이다.<sup>10)</sup>

또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자기 부정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자기 거부와는 아무 관계도 없음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해 진다. 첫째로 단순한 포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주권을 돌려주는 포기가 문제이다. 둘째로 이러한 포기는 단지 부정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소원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된 자기 부정의 힘은 주안에 있다.<sup>11)</sup>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에 우리가 참여한다.

---

10) 조주석, *Op. cit.*, pp.122~123.

11) 빌헬름 니이젤, *Op. cit.*, pp.141~142.

### 3.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

칼빈은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사귀을 가지는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며 “온갖 악으로 들끓는 세상에서 심히 어렵고 곤고하며 조용하지 않은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십자가의 생애였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5:8)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칼빈은 역설한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선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아야 할 모범이시다(롬8:29).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워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신 후 영광의 자리에게 가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뚫고 영광의 차원으로 간다(행14:22). 즉,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케 된다(빌3:10,11).<sup>12)</sup>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3,4)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인내하고 복종하도록 훈련을 시켜주며, 악의 구실을 하고, 아버지의 응징이기도 하다. 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sup>13)</sup>

또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음의 변호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과 의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사탄의 간계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있어서 혹은 선한 자들과 무죄한 자들을 사악한 자들의 거짓과 잘못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과 증오를 감수하지

---

12) 이형기, Op. cit. , p.285.

13) 포드 루이스 베틀즈,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분석’, 양 건, 강명희 공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pp.247~249.

아니하면 안된다. 이 경우 우리의 생명, 재산, 혹은 우리의 명예까지 위협을 받는다.

계속해서 칼빈은 십자가의 경험에 관하여 말한다. 즉, 이 경험은 스토아 철학적인 무감각과 평정의 경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고통이다. 칼빈이 인용하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가현적 예수상이나 가현적 교회상을 거부하고 인간의 모든 정서까지를 동원시키는 전인적 고통에 대하여 말한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요16:20),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마5: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눅22:44),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막14:33),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26:38).

신.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희랍철학이 말하는 형이상학적 신이나 그 어떤 이론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의 고통에 참여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교회 역시 이 세상과 역사속에 참여하여 고통과 고뇌에 동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자연적인 성향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향 사이에 큰 갈등을 경험한다. 마치 베드로가 만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없게 되었듯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21:18).<sup>14)</sup>

만일 하나님의 명백한 공정성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거하는 것은 반드시 공정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니 양보해야 한다”는 효력 없는 주문은 이제 들리지 않고 우리는 생명력과

---

14) 이형기, Op. cit. , pp.285~287.

효력이 충분한 교훈 즉 “항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초조와 불안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항하는 무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교훈을 듣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유익이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고난을 겪게 하시는 바로 그 행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신다고 언명하심으로써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우리는 필연성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에 동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가 자연히 그 가혹함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긴다. 이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만 올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막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15)</sup>

#### 4. 내세에 대한 소망

칼빈은 본 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하여 현생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을 말한다.

---

15) 칼빈, Op. cit., p.228.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동물적인 집착과 애착을 갖는다. 이들은 부, 권력, 명예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다. 전 영혼이 육체의 유혹에 말려들며 이 지상에서의 행복을 결사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일과 안정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욕망들에 의하여 갇혀있기 쉽다. 오직 십자가의 경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영생을 명상하게 된다.<sup>16)</sup>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현세 생활의 불안을 깨닫는 때라야 우리응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 현세 생활은 그 자체만을 본다면, 불안과 동요와 불행이 무수히 많고 순수한 행복은 아무 데도 없다. 인생의 행복이란 것은 모두 확실치 못하며 곧 없어지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섞여 있다. 이 점을 보아서 우리는 동시에 현세 생활에서 우리가 바라며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분투 노력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우선 현세 생활을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 내세를 원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sup>17)</sup>

참으로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 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다. 따라서 영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악한 족쇄를 부수어 버려야 한다. 현세 생활에는 우리를 꾀는 것이 많으며,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런 외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재앙의 아픈 자극을 끊임없이 받으면서도 인생의 가련상을 고려할 만한 각성이 없는데 만일 부하고 행복한 기쁨이 장구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sup>18)</sup>

---

16) 이형기, Op. cit., p.288.

17) 칼빈, Op. cit. , p.230.

18) 위의 책, p.231.

우리는 확신하게 된 후에도 지상 생활에 최고의 선이 내포되어 있는 듯이 여전히 인생에 대한 어리석고 비열한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 전력하여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도록 해야 한다.<sup>19)</sup>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돼야 한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종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 은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짓게 된다. 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 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sup>20)</sup>

신자는 하늘의 내생에 관해 정당하고 흔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주와 따로 거하나”(고후5:6), 영원토록 그분의 임재를 즐기는 것은 더 할 나위 없는 행복이 될 것이다.<sup>21)</sup>

우리는 우리의 썩을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후 5:2,3)을 인용하였다.<sup>22)</sup>

바울은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는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불행

---

19) 위의 책, p.232.

20) 위의 책, p.232.

21) 조주석, Op. cit. , p.125.

22) 이형기, Op. cit. , p.288.



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경건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였다(살후1:6,7).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다. 이 위안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거나 이 세상의 허망한 위안에 사로잡혀 멸망할 것이다. 예언자까지도 악한 자들이 현세에서 창성하는 것을 너무 깊게 생각했을 때 거의 실족할 뻔했노라고 고백한다(시73:2,3).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경건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말로를 볼 때까지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시73:17).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만일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와 육과 죄와 악한 자들을 결국 이겨낼 것이다.<sup>23)</sup>

## 5. 현세 생활과 보조수단

현세 생활에서 좋은 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엄격함과 나태함인데 먼 순례의 길과 같은 전 일생을 통해 우리는(필요에 의한 것이든 기쁨을 위해서이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에서의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궁핍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없어도 지낼 만한 모든 것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마음에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현생의 사물을 이용하는 것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중용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상의 선물을 만드신 것이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은 지상의 선물을 이용

---

23) 칼빈, Op. cit., p.237.

하도록 해야 한다.<sup>24)</sup>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각종 은혜를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재리를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따라 충실히 섬겨야 한다. 선물을 주신 이를 우러러 보면, 웅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피조물의 이용을 필요한 용도에만 제한하는 물인정한 철학을 버려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서 빼앗는 사악한 생각이며, 인간을 무감각한 목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는 데도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의 정욕은 절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넘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육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구실로, 무엇이든지 육욕에 허락한다.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를 위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그를 인식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sup>25)</sup>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우리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한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길은 현세에서의 삶을 멀리하고 하늘의 영생 불멸을 명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법칙이 나온다. 첫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바울의 교훈이다(고전7:29~31). 둘째는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유함을 절제하라는 것이다. 세상 물건을 쓰되 쓰지 않는 것같이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폭음 폭식과 식도락과 건물과 의복의 사치와 야심과 자만과 교만과 까다로운 성격 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을 생각하며 영혼을 함양하려는 우리의 열의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는 모든 관심과 취미까지도 끊어버린다.

---

24) 양 건, 강명회, Op. cit. , p.252.

25) 칼빈, Op. cit. , p.241.

그러므로 외면적인 일에 대한 신자의 자유를 고정된 조문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자유는 이 법에 복종해야 한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쾌락에 흐르지 말라. 오히려 불필요하게 풍요한 것은 형적도 없이 끊어버리도록 불굴의 정신으로 싸우라. 방탕한 것은 입에 담지 말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보조물들이 장애물로 변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라는 것이다.<sup>26)</sup>

대부분의 죄악은 물욕으로부터 온다. 성경에는 지상 물질을 이용하는 데 대한 지도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우리의 유익에 충당 되도록 하셨을 때에, 그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보던 일을 셈하라”(눅16:2)는 말씀을 항상 귀에 들리게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셈을 누가 요구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한다. 그는 곧 극기와 단정한 정신과 검소와 절제를 권장하시고 무절제와 자만과 허식과 허영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유용한 물질을 분배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물건이 사람의 정신을 정절과 순결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마음을 흐리게 할 때에는 친히 전적으로 배격 하셨다.<sup>27)</sup>

끝으로 칼빈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 각자는 자기의 소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각자는 자기의 특수한 생활 방도에 관계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사람의 여러 종류의 삶의 현장은 초소의 직분과도 같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한계를 넘지말고 주어진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집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 수행과 모든 책임 수행에 있어서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

---

26) 위의 책, p.242.

27) 위의 책, p.243.

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있게 이웃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이다.<sup>28)</sup>

### Ⅲ. 현대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진단과 생활 개혁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고려조는 불교가 망하게 했고 이 조는 유교 때문에 망했다. 만약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당시의 대통령이 감리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인 양 보이는 고위 관리들이 군정 시대부터 특세한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기독교를 걱정하는 소리는 있어도 그나마 이런 이야기마저 없는 시대가 되고 보니 우리는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과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민족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앞에 기독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물론 신문 사회면에 부끄러운 사건이 실릴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sup>29)</sup>

이렇듯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명예와 지위를 실추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라는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분명히 이 민족을 책임지며 이

---

28) 이형기, Op. cit. , p.291.

29) 홍정길, ‘한국 교회는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서울:두란노,1995),p.15.

끌어 가야 한다.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쓰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한 기독교의 타락이 더 이상은 있어서도 안된다.

칼빈의 견해에 따른 생활에 대해 살펴 본고로 이제는 현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진단하며, 성경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절제한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로의 전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또 목회자들의 역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은 어느정도 기대 하는지 알고자 한다. 그리고 현세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보조수단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다.

## 1. 그리스도인의 생활 진단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한다. 이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입되는 거룩함인 것이다.<sup>30)</sup> 이말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생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작정 떼를 쓰기 위한 인간의 생각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거룩함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자행되는 교회들의 모습은 기업을 운영하듯이 인간의 서투른 방법으로 얼룩진 상처들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교회의 얼룩진 모습들을 씻어내려고 거룩함에 거하는 생활을 부르짖고 있다. 누가 위선자이고 누가 거룩한 자인지 분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윤곽이 드러난다.

---

30) 포드 루이스 베틀즈, 양 건,강명희공역,Op. cit.,p.242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룩함에 거하라고 요구하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많은 이론들을 제시한다. 그리고는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며 죄악에 빠지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한가지 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을 간직하며, 거룩함에 거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목회자와 목회에 대해 진단을 해보기로 하고 평신도로서의 생활도 간략하게 진단 해 보기로 하겠다.

### 1) 목회자와 목회 진단

현대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거룩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몇 명이나 그렇다고 대답 할 것인가? 그렇다고 대답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거룩한 목회자라는 말을 듣는 경우는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렇듯 가장 본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생활을 해야 할 목회자들의 삶은 자신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인가? 성경에 따르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선생이 목회자의 직분에 대해 논술해 놓은 것을 인용하여 목회자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느정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접근하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인식하고 현대 한국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며 치리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윤리적 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하다는 것은 때로는 목회자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숨기며, 목회자의 권위를 운운하며 감추려하는 데서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되고, 결국에는 강단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감독 하는 뜻에서 평신도를 감독의 돕는자로 세운바 있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를 지금의 한국교회에서 실시한다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얼마나 될까? 그만큼 본이 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깨운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너무 많은 것을 잘 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역시 어느시대나 목회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했다. 목회자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움직임이 변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떠한 방법과 태도로 목회에 임하고 있는지 알아야 겠다. 칼빈의 견해에 따른 목회자의 직분과 맡은 일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같은 작업이 이루어질 때에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① 비 복음적 목회

한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고 복받는 것을 가르쳐 왔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보세”라는 군사정권의 구호에 맞춰 축복론을 설교했다. 기독교의 복을 물질적이거나 병 낫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시내산 아래의 아론처럼 하나님을 mammon(물신)으로 만들었다. 많은 교회마다 물질이나 축복을 받기위해 모이는 인파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적 복이란 죄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복이다. 이것이 약화 되어 있다.<sup>31)</sup> 한국교회는 세상 삶의 중요성에 대해 무시했고, 윤리와 도덕적 삶에 있어서 한국 사회를 향하여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기 보다는 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증거하였다. 이 기복신앙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무속종교의 신이나

31) 김영한, '한국교회 목회의 문제와 갱신', 성경과 신학, 1994.16권, p.19.

차이가 없어져 버렸다. 보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일수록 인적, 물적 자원을 사회 구제,봉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참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정치적 부패,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조하기에 이른다.<sup>32)</sup>

## ② 목적 성취의 목회

많은 목회자들이 대형교회가 목표가 되고, 교인이 많아야 성공한 목회이며, 큰 건물, 좋은 승용차, 많은 헌금을 거두어야 성공한 목회자라는 세속적 방법이 교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목사의 진실과 정직, 소명과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교회간의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먼거리에까지 대형버스를 동원해 교인들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본적 목회윤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로지 교회가 커야 한다는 목적만 성취하고자 한다.<sup>33)</sup>

## ③ 기업화 목회

교회의 전통이나 특성보다는 물량화에 치우쳐 개교회의 개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교회의 예산책정과 그 운영이 일반사회의 기업체 모양으로 되어간다. 교회의 외형적 모습에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건물 크게 짓는 것과 기도원,교회 묘지 조성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왔고, 돈을 주고 성가대원을 사오며 부흥회 등의 초청강사 사례비가 수백만원씩 되기도 한다. 헌금이 강조되어 십일조와 별미헌금 등 그 액수가 신앙의 업적이나 공로처럼 되고 있다. 이렇듯 물질을 주고 받는 식으로 봉사를 청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식 교회가 되어 버리고 있다.<sup>34)</sup>

32)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p.73.

33) '한국교회 새로운 성장의 모델을 찾자', 월간목회, 통권194호, 1992년 10월, p.51.

34) 이장식, '기업성 없는 교회성장을 이루자', 월간목회, 1990년 4월호, p.28~31.



#### ④ 비 전문인 목회

목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문인이다. 의사가 십여년 동안 공부하고 실습하여 전문인이 되듯이 목회자는 교회 봉사를 위한 신학의 습득과 교회 봉사를 위한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해박한 지식,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등이 필요시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핑잡는 것이 매다'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교회에 묶는 목회, 심방 위주의 목회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기 보다는 하나의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인간적인 배려와 관계에만 치중한다. 심방은 목사가 교인들의 생활의 현장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목회 사항이다. 그러나 심방을 말씀의 공부와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자로 양육하기 보다는 목사의 안면 때문에 인도자의 얼굴 때문에 교인이 되도록 하는 목회이다. 여기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보다는 목회자 내지 심방자와의 관계가 중요시 된다.

#### ⑤ 자기중심적 목회

한국교회는 개교회 왕국이다. 기독교 초창기에 네비우스의 자전, 자생, 자립을 강조한 한국교회는 자생력을 가지고 전파를 하고 행정적으로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로 자라났다. 이것은 네비우스 선교원리의 성공적인 결실이었다. 감독정치제도를 가진 감리교회는 물론, 장로교회도 교구제도를 가진 교회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장로교의 분열(예장과 기장, 예장의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로 인하여 교세확장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생겨난 무지역 노회와 교구제도적인 교회제도가 와해 되기 시작했다. 각 지역의

개교회들은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대형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60년대부터는 개척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런가운데 교회가 스스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속에서 교회의 개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개교회주의가 체질화 되었다.<sup>35)</sup>

개교회주의란 전체교회가 하나라는 사고보다는 개체교회가 곧 전체교회라는 사고와 태도이다. 교단 사이의 협조에는 인색하고, 선교사 파송, 개척교회 설립, 선교활동, 사회복지 사업, 언론 등 거의 모든 사업을 개교회 중심으로 전개한다. 그리하여 대형 개 교회 목회자가 정치 우상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교회는 커지겠지만 사회적으로 교단적으로 폐쇄적이 되고 말았다. 초대형교회의 목회자는 막강한 교회 재정력과 교인수를 근거로 교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⑥ 미자격자의 목회

각종 군소 무인가 신학교로부터 대량생산되는 목회자들은 신학교육과 인격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사안수를 받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는 교회당이 4만 2천여개, 신도는 1천2백만명, 교회시무 목사만 4만 여명에 이른다. 전도사 및 강도사급을 포함한 교역자수는 18만 여명에 이른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는 350여개의 무인가 신학교가 있다. 93년 무인가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 후보생은 6,300여 명에 이른다. 즉 한국교회 목회자 수급의 약 2/3를 아직도 무인가 신학교 출신들로 채우고 있다.<sup>36)</sup>

세속적인 목회자가 되려는 꿈과 야망을 버리고,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건전한 시민이 되고, 진정한 소명이 있으며, 세상의 교통질서를 지키듯이 정상적인 교육

35) 김영재,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반성과 갱신을 위한 제언', 제23차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집, 1994년 4월 15~16일.

36) 교회 연합신문, 1994년 3월 12일, 6면.

제도에 참여하여 그 신학교육에서 자격을 얻어 떳떳하게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 ⑦ 권징이 부재하는 목회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위를 살피는 가운데 목회자의 권위가 추락되고 권징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기의 영적 도덕적 순결을 유지 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교회의 표징이다. 권징이 행해지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다. 권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당회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권징을 집행 할만한 영적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가 분열되고 교파가 사분오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서 권징을 당하면 저 교회로 교적을 옮기고 저 교회는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운리와 목회운리의 결여현상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교단에서 권징을 당하면 저 교단으로 옮기고 저 교단에서는 환영해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징이 설자리가 부재하다. 권징이 부재함으로써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규율과 원칙이 부재하며 신자들의 삶도 진정한 경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안에는 본혜퍼가 말한 바 같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고귀한 은혜가 한갓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고 있다.

### ⑧ 성직 매매의 목회

중세의 교회는 성직매매의 절정기 였다. 기독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성직을 돈으로 사고, 구원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자행 됐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니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현대의 한국교회에서 위와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공공연하고, 당연하듯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를 보면, 먼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어렵게들 신학공부를 마친 전도사들은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강도사가 되기까지도 전도사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돈을 고시부에 내야한다. 돈이 없을 경우에는 강도사 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다. 어쨌게든 목사가 되어야하겠기에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강도사 고시를 치루게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되어야하는데 목사가 되기위해서는 안수위원 목사들에게 거마비를 지불해야 하고, 노회에 선물을 상납해야 하며, 참석자들에게 기념품과 식사 대접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므로 목사 안수를 받기전에 망서려야 하는 일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장로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노회원들에게 적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장로가 될 수 있으며, 권사와 안수집사 등 평범한 직분자가 되기위해서도 많은 돈이 요구 된다.

이것이 곧 현대판 성직매매로 급부상 되어 교회의 타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가 돈을 받고 직분을 허락 하도록 했는가? 목회자들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성직매매이다. 이 성직매매는 목회자들에게서 나왔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 ⑨ 그 외 바르지 못한 목회

한국교회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영계를 혼탁하게 하는 현상이 기복적 신앙에서 왔다고 한다. 기도원 운동은 교회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나 부흥사들의 비성경적 가르침으로 신비적 신앙 운동이나 기복적 신앙에 도움을 주었다.<sup>37)</sup>

---

37) 복음신문 1992년 6월 7일자.

또한 사회복음운동으로 인하여 사회 인권운동에 치중하여 반 정부를 외치는 주동자 역할을 하는 교회도 적지 않았다. 교직과 정치지향적 목회자들에 의하여 이상한 보직들을 앞세우고 명예욕, 권위주의욕이 가득한 행사를 주도하고 있어서 교계가 어지러워지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떠나는 목회자와 교회로 전락하는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목회자들은 희생과 근면에서 탈피하여 호화스러운 안일한 생활을 하기도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현주소이다.

## 2) 평신도의 생활진단

생활에 대한 문제의 요소는 가정에서 발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가정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교회와 각 기관에서 가정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증거이다.

현대는 급속한 사업화의 물결 속에 가정이 몸살을 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서구 문명은 200년을 걸려서 이뤄 놓았고 일본은 150년, 한국은 30년만에 이뤄 놓았다고 했다.<sup>38)</sup>

이러한 급 경제성장은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져왔고, 빈곤한 생활에서 물질적인 낭비의 생활로 변화 되었다. 거기에서 오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은 역기능적 가정들을 만들어 냈고, 이혼율의 증가와 결손가정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가정의 위기는 계속되어서 청소년문제로 심화되고, 발달한 문화를 교회가 앞지르지 못하므로 세속 놀이 문화에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

38) 원효식,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안양대학신대원,1996), p.43.

빼앗기고 말았다. 장년들은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고급 스포츠와 음식 낭비 문화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위의 일들이 세상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부에 까지 침투해서 성도들간의 침묵이라는 비명하에 타락과 낭비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책임을 묻는다면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성경적 모범을 제시하지 못하고, 세속문화에 이끌려 가도록 보고만 있었다고 하겠다. 근면의 생활은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근면이라는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 목회자들은 교회 건축에만 모든 정신을 쏟았고, 성도들은 그러한 이끌림 속에서 영적인 사리분별을 할 여유도 없이 지금의 생활에 까지 오게 된 것이다. 교회에 몇십년을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장로며 권사, 집사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오히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속인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교회들의 썩은 행정은 물질의 횡포에 눈이 먼 지도자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출발한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게 취급하여 직분의 승진을 초고속화 하며, 가난하여 헌금은 적게 내지만 충성스럽고 정직한 자들의 신앙을 값싼 고무신 취급하듯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그것은 목회자의 개혁과 더불어 교회의 개혁, 성도들의 불감증을 제거하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치료되지 않을까?

## 2. 그리스도인의 생활 개혁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데서 오는 신앙의 미숙아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성숙하여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개혁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스스로 성숙해 가는 신앙지도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찰스 라이리는 그리스도인이 성숙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영적 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어떤 마지막 과정이 이루어지기전에, 믿는 사람들은 먼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필수 요건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헌신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기 생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성장과 발전의 기본 원리를 얻게 된다.<sup>39)</sup>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8:13)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조화를 가져오는 대단히 흥미있는 성구이다. 한 가지는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갈5:24) 일지라도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시제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을지라도 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실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이다.<sup>40)</sup>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5:16).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계속 의지하는 것은, 영적 성장과 승리에 대한 기본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지속적인 발전의 생활

---

39) 찰스 라이리, ‘균형잡힌 신앙생활’, 유화지역, (서울:생명의말씀사, 1991년), pp.287,288.

40) 위의 책,p..289.

이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성경은 요한일서 1:7절 말씀이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표준은 곧 하나님이다(5절).

하나님은 이 표준을 낮추시거나, 혹은 다른 무엇과 타협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태도와 목표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정의한 이유이다(롬3:23). 오늘날과 같이 실용성(實用性)을 중요시하는 시대와 합리주의적(合理主義的)인 시대에서는 더욱 이 사실을 잘 기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sup>41)</sup>

헌신의 생활은 훈련과 의지와 발전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2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진리의 요소들을 균형있게 잘 조화시켜 지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사실을 그대로 잘 행하는 것이다.<sup>42)</sup>

찰스 라이리의 견해대로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지금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생활개혁의 문제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개혁을 단행할 때에 전 교회의 성도들이 개혁의 조짐이 보이지 않겠는가?

역시 헌신된 목회자들을 통해서 헌신된 성도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자신의 개혁과 목회 방법의 개혁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 1) 목회자에 대한 칼빈의 견해

---

41) 위의 책, pp.291~293.

42) 위의 책, p.295.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선생이 목회자의 직분과 태도에 대해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고 현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갖을 것과 현대 목회방안과 21세기를 향한 목회의 비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홀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의 말씀만으로 그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마 26:11)<sup>43)</sup> 인간의 목회활동(사역)을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사역은 넓은 의미의 말씀사역 혹은 말씀봉사이지 결코 설교직 하나로 집중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루터의 교직관은 만인제사장설에 입각해 있으나, 칼빈의 그것은 다음 열거할 표현들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sup>44)</sup>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가리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절(고후5:20), 하나님의 성전들(고전3:16,17, 6:19;고후6:16), 주님의 전언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 혹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등으로 표현한다.<sup>45)</sup>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설교하신다. 따라서 사람의 입술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인 양, 우리는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보물이 이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것이다(고후4:7). 칼빈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인대와 신경조직이라고 부른다.<sup>46)</sup>

칼빈은 막16:15을 인용하여 사도직이란 복음설교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어떤 국

---

43) 존 칼빈, '기독교강요 하권', 김종흠,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9), p.59.

44) 이형기, Op. cit., p.364.

45) 위의 책, p.364.

46) 위의 책, p.365.

한된 지역이 아니라 온세상 어디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목사직은 사도직의 기능을 물려받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마28:19에 근거하여 사도들은 복음을 설교하고 죄의 용서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만찬을 집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목사직과 사도직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란 사도의 경우 목회의 대상이 온 세상이며, 목사의 경우 개교회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는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권면과 훈령까지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처리권을 갖는다. 그런데 목사가 개교회에 국한하여 목회를 해야 하나 타교회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sup>47)</sup>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에 말씀 사역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을 검토하며,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생활을 감찰하기 위하여 평신도 중에서 제네바 의회의 회원인 사람들을 각 교구에 몇 사람씩 두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목사들과 협력하여 교인들의 삶을 살피다가 최악의 경우 문제의 교인을 제네바 의회에서 처리케 하고 성찬정지를 하게 한다. 그러나 성찬정지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듣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돌아왔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다시 성만찬을 받게 허락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처리의 강조는 칼빈 신학이 성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sup>48)</sup>

위와 같은 칼빈의 견해를 언급해 볼 때에 목회자의 권위와 권세는 대단한 것이다.

## 2) 목회자의 생활과 목회 개혁

### ① 하나님의 목회

---

47) 위의 책, p.367.

48) 위의 책, pp.368~369.

목회자 자신의 생각이나 일반 성도들의 생각도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가 되는 목회를 해야 한다. 자기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목회이다. 목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목회에 하나님이 역사 하신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다. 목회자가 군림하지 않고 역자로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의 주체라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주시고 교인들은 신뢰하고 따라온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혀 주신다.

교회성장의 주체는 목회자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한국교회의성장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특이한 사건을 통하여 행하신 것이다. 1905년 을사보호 조약 때 외교권을 박탈당하니까 우국지사들이 전부 교회로 들어왔다. 당시 5,6년 사이에 1만 2천명이 늘어났다. 정치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는 교회밖에 없었기 유능한 지도자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때에 교회는 백만명 전도운동을 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삼백만명 전도운동을 하게 되었다. 해방 후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어 기독교 우호적 정권이 출범해 1950년 12월 군대에 군목제도가 도입되고 형무소에 전도의 길이 열렸다. 월남한 교인들 때문에 남한의 교세는 커졌다. 월남한 교인들이 도시에 집결했다가 6.25사변이 나면서 방방곡곡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워서 교회중심으로 피난생활을 하였다.

70년대 초에는 신자가 삼백만 정도였는데 70년대 후반에 가서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교회성장률도 상승해서 칠백만 명이 되었다. 그런데 80년대에 가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49)</sup>

이제는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만한 양적성장에서 이제는 내실화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목회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49) 유희준, 지원상, 림인식, '한국교회의 성장정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목회와 신학, (서울:두란노서원,1993년 12월호),pp.31~32.

## ② 성경에 근거한 목회

하나님의 목회는 곧 하나님 말씀의 목회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이며,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이며 요한계시록이다.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이 시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선포가 없는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신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역사를 조망하고 우리 시대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분별하여 교인들에게 옳은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높은 파수대 위에서 닦쳐오는 위협을 예지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6~70년대 미국교회는 사회복음주의가 지배했다. 그러자 교인들이 줄어 들었다. 그것을 깨달은 미국교회는 80년대부터 복음운동을 전개하며 복음주의로 돌아왔다. 사회복음주의는 사회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의 신정통주의자 바르트도 초기에는 하르낙과 헤르만 등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운 자유주의 착상, 주로 노동자의 임금문제, 사회 정의 문제 등을 우선시 했다. 그러나 목회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하나님 말씀의 목회를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붕괴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재발견하기에 이른다.<sup>50)</sup>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목회의 지침서요 교회의 교과서이다. 한국교회가 칩분팔릴 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지침을 받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목회자들이 각기 자기소견대로 행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50)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서울:기독교 서회, 1993), pp.16~21.

목회사역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말씀의 선포인 설교다. 목회자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있게 해석해야 한다. 듣는 이들에게 영적인 경고와 견책과 위로와 용서를 주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목적적 상황과 연관되어, 체험적인 설교로 전달되어야 한다. 설교는 목회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다. 심방, 교회행정, 상담보다 일차적인 목회 과제이다.

### ③ 성령께서 인도 하시는 목회

하나님의 목회는 성령의 목회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역은 인위적 신비주의가 아니고 영적 감화력에 기초한다. 성령은 마술적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결과 성화와 사랑과 헌신의 영이시기 때문이다.<sup>51)</sup>

목회자의 지도력은 지도로겨의 야망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감화와 이끌림에서 나와야 한다. 지도력은 감화력에서 나온다. 카리스마는 목회자의 인격에서 나와야 한다. 억지의 권위주의가 아닌 인격의 권위가 요구된다. 이 인격의 권위는 성령의 권위에서 나온다. 성령의 목회는 교인의 중생, 구원, 영생, 부활, 천국 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목회이다. 도덕성의 함양, 인격의 변화, 경건성의 함양 등 그 마음을 돌본다.

신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령이 목회의 원리이다. 이것이 성령의 목회이다. 사람의 머리수, 헌금의 집계, 교회당의 크기보다 신자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 영적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므로 성령의 불이 임하며 목회자와 교인의 심성이 변화를 받아 성령이 주장하시는 목회가 된다.

---

51) 김영한, '한국교회 목회의 문제와 갱신', 성경과 신학 제16권, (서울: 도서출판 햇불,1994), p.31.

목회자는 자기 영혼의 재충전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야 한다. 교인들에게 영적인 영의 양식을 주는 목회자는 자기만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골방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온 교우가 합심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하므로 성령의 역사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골방기도와 더불어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나오고 중생하고 교회가 탄생하였다. 기도없이 성령의 목회가 될 수 없다. 지속적인 기도는 성령의 역사의 전제조건이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었다. 생동적인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있고 매일 새벽기도가 있다. 이렇듯 기도의 불길은 한없이 타올라야 한다.

#### ④ 십자가를 지는 목회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 요청된다. 목회의 길은 결단코 자신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길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이 고난은 십자가 죽음 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길이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의 골짜기를 통하여 비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얼마나 이십자가 의식이 희박하고 오로지 큰 교회, 세속적 영광을 얻으려는 영광의 메시아 상을 추구하는 자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교회와 목회자가 세속적인 영화와 부귀를 추구할 때 더 이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이 아니고 인본주의적 교회와 종이 되어버린다. 목회자는 가난하고 약한 자 특

히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갖고 저들과 관계해야 한다. 구약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의 예산이 이들과 사회의 소외 계층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어야 한다. 구제와 봉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한다.

#### ⑤ 협력하는 목회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내세우는 배타적 목회 아닌 상대방의 견해도 인정하고 자기를 열고 포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자기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권위도 인정하고 함께 연합운동을 하는 목회가 요청된다. 여기에 진정한 영역주권사상이 요구된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영역에 종사하는 인간은 그의 종이요, 심부름꾼에 불과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교회주의를 지양하고 노회와 총회와 연합운동에 나서야 한다. 교단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건전한 교단끼리의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목회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이 요긴하다.<sup>52)</sup>

#### ⑥ 선지자적 목회

역사적 시대의식을 갖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목회자는 영적, 정신적, 도덕적면에 있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 마약문제, 기성세대의 타락, 첨단의학 기술(인공수정,복제인간,염색체공학)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이 없는 국민은 방자히 행한다”(잠29:18) 목회자는 시대를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한다.

---

52) 위의 책,p.34.

절대권력과 부의 독점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생겨난다. 절대권력은 부패하고 부의 독점은 사회의 위화감과 부정을 가져온다. 미가나 아모스 등 구약의 예언자들은 당시 사회의 부정과 사치, 낭비와 불의한 권력에 대하여 비판했다. 그들은 정의와 인자가 제사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포했다. 목회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

성경과 더불어 신문과 매스컴 뉴스를 동시에 읽고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성경으로써 진단해야 한다. 건전한 텔레비전 문화를 위하여 편파보도 내지 불량, 비윤리적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 거부 운동 같은 것을 펴서 건전한 시민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불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정의롭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루도록 설교해야 한다. 관청이나 학교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부당한 봉투나 촛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sup>53)</sup>

보편적인 인류애 안에서 민족공동체를 품에 안은 교회가 되도록 한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회의 양심을 대변하고 그 사회의 고통에 참여하고 어려움과 짐을 분담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가 가이사에게 바칠 것에 대하여서는 서슴지 않고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재산 관리법 제정은 필요하나 교회가 자기 재산권옹호를 위하여 제정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슬기를 발휘해서 그 내용이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산가족의 슬픔, 민족분단의 고통, 우루과이라운드의 총격입은 농민의 아픔, 각종 사회불의에 피해를 본 시민들의 고통, 인권유린 등에 교회는 이들의 옹호자요 대변자요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안에 와 있는 수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 민족이 사랑하고 그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그

---

53) 위의 책,p.35.



사회의 배척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평등화, 사회의 복지화에 앞장 서 나가야 하겠다.

#### ⑦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

대형교회들은 요사이 사회복지 사업에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형교회는 자기들 교회가 아직도 작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구제와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내외 선교지원,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 일반장학금, 신학생장학금, 빈민구제, 장애인 선교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탁아소, 유치원, 영아원, 노인대학, 주부대학, 음악감상실, 도서관, 지역사업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한국교회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예산은 3%에 불과하다. 적어도 10%는 되어야 할 것이다. 개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농촌교회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사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의식개발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교회가 자급자족에만 치우쳐 교회예산을 교인들끼리만 소모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sup>54)</sup>

교회재정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십일조를 세상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밖에 있는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본혜퍼의 말처럼 교회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혈운동, 환경운동, 통일을 위한 준비, 평화교육, 지방색타운동, 노사화해운동, 계층간의 갈등해소 운동, 능력에 따른 소득분배의 균등화, 도덕운동, 질서운동, 자

---

54) 이장식, Op. cit. , p.31.

체 정화운동을 스스로 전개해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이고 흩어지고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공간을 예배없을시 비워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전한 사업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데 주차장 제공,교육관 대여, 사회봉사관 대여, 각종 시설 대여 등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그 위치와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교회는 지역모임을 위하여 예배당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성숙이원론을 철폐하며 예배당은 일반 집회에 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장로교의 보수적 사고에 대하여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사회봉사관을 만들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의 가난한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법률상담, 세무상담, 진학상담, 각종 장애인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다.”, “우리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다” 라는 바른 이미지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교회는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낮은 계층과 접촉을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의 개척 초창기에는 빈민, 고아, 과부 등 하류계층에 속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진 후 그리고 교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사회의 하류층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귀족화 내지 중산층화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소외된 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sup>55)</sup>

#### ⑧ 선교하는 목회

아직도 한국교회는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격차는 엄청나다. 도시 대형교회

---

55) 김영한, Op. cit. , pp.35~38.

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농어촌의 교회는 아직도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한국교회 가운데 아직도 2/3가 아직도 영세적인 모습 속에 있다. 도시 대형교회들은 이들 농어촌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 외딴 도서 산간 등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아니한 곳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서구 교회가 쇠퇴하고 더욱이 문화적으로 서구인들의 선교를 거부하는 아시아 지경과 아프리카 지역에 작은 한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민족에게나 거부감이 없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장의 축복을 자기교회의 비대화를 위하여 쓰지 않고 국내의 변두리 지역과 해외선교를 위하여 힘을 쏟아야 한다.

1990년 세계인구는 약 52억인데 그 중 기독교인구는 17억이며 복음적 신자는 약 5만명이다.<sup>56)</sup>

1950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은 8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3%이었고 1992년에는 5억 4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10%이었다. 나머지 90%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지구상에는 6천여 가지의 언어를 말하는 2만 4천 종족이 있으며 이중 1만 1천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다.<sup>57)</sup>

총 인구 30억 중 1억이 기독교인인 아시아는 우리의 해외교구이다. 일본은 1억 2천5백만 인구 중 개신교0.6%, 카톨릭0.3%이다. 중국은 탄압 속에서도 7천만 신자로 성장하고 있다. 1989년 4월 10일 자 '뉴스위크(Newswick)'지는 최근 중국에서는 36시간마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기독교가 성장할 때 중국은 우리의 반쪽인 북한선교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56) 이태웅, '치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목회와 신학, (서울:두란노서원, 1990년 1월호), p.68.

57) 노봉린, '한국선교 100년의 평가와 새 전략', 목회와신학, (서울:두란노서원, 1990년 12월호), pp.296~297.

1907년 이기풍 목사를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했고 1912년 기명훈, 박태문, 사병순 세 명의 선교사를 신동성 내양현에 파송한지 80여년이 지난 현재 1992년 한국교회는 2,576명의 선교사를 105국에 파송하고 있다.<sup>58)</sup>

#### ⑨ 그 외 올바른 목회

목회에 있어서 상담은 큰 비중을 차지 한다.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목회 상담을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목회 상담 시간을 내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신도들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목회자는 성도들 보다 지적 능력이 앞서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현대의 직업과 가정환경 속에서 받은 여러 가지의 상처(부부 관계, 자녀문제, 청소년의 고민, 노인의 문제, 노사관계, 신체의 질병 등)를 상담을 통하여 듣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목회상담 기술도 필요하나 성령의 치유의 사역이 요청된다.

평신도와 함께 일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인격적이고 지적이며 의지적인 지도력을 갖도록 자기자신의 훈련도 꼭 필요하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맡겨주는 것도 목회자가 할 일이다. 새신자를 잘 양육하여 그들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도 목회자의 지도력에서 나온다. 과거의 목회에는 탁월한 지도자, 우월한 지도자, 권위있는 지도자,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요구되었으나 현대에는 겸손한 지도자, 성실한 지도자, 대화를 나누는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다.<sup>59)</sup>

섬기는 목회자상은 결단코 무능하다거나 교회의 목회경영에 있어서 교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인들보다 앞서 보고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

58) 김영한, Op. cit. , p.39.

59) '특별좌담-목회자의 리더십을 진단한다', 월간목회, 통권 164권, 1990년 4월호, p.48.

야 한다. 목회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있다.

첫째, 올바른 식견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내에 야기하는 모든 사태에 관하여 바르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편파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유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도력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당의 총재나 회사의 회장과 같은 고자세의 지도력이나 강압적 지도력은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없다. 지도력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섬김과 모범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지도력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sup>60)</sup> 인간의 말이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말에 좌우 되지 않고 기도와 명상 가운데서 성령이 지시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지도력은 목회자가 앞장서서 나가 본을 보이는 것으로 가시화 되어야 한다. 전도하러 나갈 때 교인들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 교인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요청된다.<sup>61)</sup>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빌3:17)고 말하며 관용(빌4:5)을 강조했다. 지도자는 사심과 사욕이 없어야 하고 진실하며 겸허하고 봉사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 절제하고 자선에 힘쓰며, 겸손하고 자제하고 봉사에 본이 되는 목회자가 요구된다.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물질과 이성과 명예욕의 유혹에서 자기를 이기는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 서로가 도우며 형제자매의 우의를 갖도록 한다. 목사이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된 목회자가 요구된다. 목회자에게는 인간된 기본적 윤리와 도덕과 책임과 양식과 인격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

60) 김선도, ‘성장하는 교회 열린 목회’, 목회와 신학, (서울:두란노서원,1990년 2월호), p.51.

61) 김영한, Op. cit. , p.42.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5). 영혼을 돌보는 눈물과 땀과 정성이 있어야 하고 양들과 함께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겸손과 봉사를 본 받아야 한다. 목회자 최대의 권위는 삶의 실증에 있다.<sup>62)</sup> 자신을 철저히 사람의 종으로 의식할 때 교인들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목회자의 참된 권위이다.

목회자의 원만한 부부관계, 자녀관계는 교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의 증언이 된다. 목회자는 신자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자기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고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는데 이성문제, 금전문제, 가정문제, 그리고 애매하게 참소자들을 통하여 다가온다. 이런 경우 목회자는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히 시인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설령 자기가 개척한 교회라 할지라도 너무 심한 배척운동이 일어날 때는 미련없이 뒤로 돌아보지 말고 혼자서 다 책임지고 조용히 물러서는 용단이 필요하다.

최대의 위기는 어떤 외부의 시험이나 교회에서의 배척보다는 스스로 목회에 안정권에 들었다고 자만하고 방심하는 태도에서 자기관리가 허술할 때에 찾아온다.<sup>63)</sup>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어 자기를 지켜야 한다.

목회자는 종신토록 가르치는 자이다.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자기 개발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영적 능력만이 아니라 인격적 능력 그리고 기술적 능력을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적 능력이란 성령의 충만을 받도

62) 홍정길, '삶의 실증속에 담긴 권위-목회자의 참된 권위',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89년 7월호), pp.103~109.

63) 최기채, '목회자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월간목회, 1993년 2월호, pp.94~98.

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격적 능력이란 지도자적인 신뢰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다. 기술적 능력이란 모든 방면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갖추고 연구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처방하고 해석해야 한다. 여기에 자기의 신학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한국목회자들을 지배한 것은 현장경험이고 상식이지 신학적 처방은 아니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변화에 가속도가 붙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요 고도의 정보기술 사회요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체제가 무너진 사회요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 국제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남북사이의 통일 논의가 무르익어 갈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유럽공동체가 단일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북미자유협정이 체결되었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기구가 창설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한국교회는 크게 비전화한 것이 없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옛 구각 그대로 있다. 장로교단이라는 수많은 교파를 교단 사이의 장벽은 여전히, 같은 교단 안의 지방색과 교권주의는 여전히.

이러한 장벽을 헐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먼저 교회가 깨끗하고 참신한 자기 갱신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21세기 메시아는 과학 기술문명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종말론적 메시지를 현대교회를 향해 선포해야 한다.<sup>64)</sup>

한국에는 무인가 신학교와 무자격 신학생이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

64) 김영한, Op. cit. , p.49.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다가온다. 교회가 대형화 될 수록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 목사를 여러명 두고 서로 협력하여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나누어 감당해 나간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목사들이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는 가운데 행정, 교육, 상담, 선교, 사회봉사업무를 분야별로 나누어 맡아 팀 사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담임목사권은 돌아가면서 하고, 여러 가지 권리도 사랑하는 토의와 기도 속에서 서로 양보 협력하는 가운데 결정한다. 이러한 목회야말로 나의 목회도 너의 목회도 아니고 우리의 목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회이다.

과대한 경제개발에 의하여 인류의 생존환경이요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이 날마다 파괴되고 황폐해 가고 있다.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농토가 산성화되어 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온실효과가 생겨나 지구 온난화가 야기하고 태양의 자외선 때문에 각종 피부암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절대 필수조건인 공기와 물이 오염되어 각종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만연하고 있다.<sup>65)</sup>

그리고 핵무기의 위협과 민족사이의 새로운 대결과 갈등이 야기하고 있다. 냉전 체제가 무너졌으나 새로운 민족사이의 전쟁과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도 영혼의 구원이라는 좁은 차원의 구원 테두리를 벗어나 영혼과 신체가 동시에 구원받는 전인적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인류의 생명이 보전되고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영시키고 성도들의 삶이 이에 상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목회자는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로서 그 질서를 회복하도록 가르치며, 한반도와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

---

65) 김영한, 위의 책, p.53.



가 정착하도록 협력하며 이끌어 가야 한다.

### 3) 평신도의 직분에 대한 칼빈의 견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목사) 외에 모든 직분자는 평신도이다. 장로에는 다스리는 직분을 맡은 자가 있는데 칼빈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을(롬12:8) 달리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각 교회에는 경건하고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sup>66)</sup>

칼빈선생은 집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제하는 일은 집사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공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고(롬12:8)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언급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공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집사직에는 두 가지 다른 등급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바울은 처음 문장에서 구제 물자를 나누어 주는 집사들을 가르킨다. 그러나 둘째 문장은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과부들도 두 번째에 속하였다(딤후5:9,10). 여자들이 맡을 수 있는 공적 직분은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뿐이었다. 이 해석을 인정한다면(또 인정해야한다),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들을 돌보는 집사들이다. 성경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

66) 칼빈, Op. cit. , p.68.

교회가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빈민을 돌보고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들의 기원과 임명과 직분에 대해서는 누가 사도행전에 기록했다(행6:3).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기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공계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직한 사람 일곱명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부탁했다(행6:1).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sup>67)</sup>

#### 4) 평신도의 생활개혁

##### ① 자기자신을 아는 것

모든 물건들이 만들어 질때에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며, 복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서야할 위치가 있으며 해야할 사역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sup>68)</sup>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친히 창조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해야 할 책임적인 인격자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1:26).

---

67) 위의 책, Op. cit.,p.69.

68) 정학봉, '성서적 청지기론', (서울:도서출판 동서남북,1991),p.16.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인격자로 지으시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책임적으로 관리케 하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인 속성을 지닌 인격자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관리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 발전시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 시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는 일이다. 여기서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이 해야 할 청지기 직분의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게 될 때에 비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69)</sup>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확신하고 있을 때에 중심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며, 사라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청지기의 신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어떤 의미부여도 그것이 인생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하여 분명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데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전5:15)라고 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지식이나 소유에 관계없이 빈손

---

69) 위의 책, p.19.

들고 왔다가 빈손들고 돌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증거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우연의 산물이나 진화론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더 잘 살아보자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있을 수가 없고, 언젠가 다가 올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sup>70)</sup>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든지 훌륭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삶을 내면적으로 보람있고 운택하게 할 수가 있게 한다.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으며 또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입장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위탁 받은 사명이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적인 사역의 사역자로서의 직분에 성실할 때에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 ③ 성도가 함께하는 기독교적 민족통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분단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민족통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민족통일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개혁은 무슨 관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 즉 하나님의 창조, 사탄의 유혹에 따른 인간의 범죄와 타락,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죄인)의 구속,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나라의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 및 역사관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인류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는 분이 며, 역사속에서 동역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

70) 위의 책, p.17.

을 믿는다.

우리는 바로 이와같은 세계관과 역사관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분단 및 통일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의 분단과 그로 인한 고통은 한민족의 불신앙과 우상숭배 등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은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우리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면서 동시에 점진적으로 사랑과 평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하나님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 반목과 대결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협력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진대, 필연코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목표인 통일,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가치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과정과 절차, 수단과 방법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그 과정속에 깊이 개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통일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의 통일, 무신론자들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서만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배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7천만 민족 구성원 중에서 천만을 훨씬 상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통일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사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이렇게 통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신앙의 갱신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일이 통일 될 때에도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10년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 했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엮어줄 것

---

71) 제성호, '민족통일을준비하는그리스도인 / 기독교인의준비',(서울:두란노서원,1995), pp.301~302.

은 민족통일을 위한 신앙동체를 이루는 것 외에는 없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한국의 전 교회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통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개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IV. 결 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 부터 난 것이니라”(빌1:27,28)*

우리에게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요1:12)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은 검소하고 근면하며 정직해야 한다. 중세의 교회에도 사치와 방탕과 과소비와 퇴폐 문화로 교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하였음을 성경에 충실했던 칼빈선생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중세 때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는 현대의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와 다를 것이 없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 되었었고, 말씀으로 회복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한 시대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현대의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 잘못 가르친 많은 부흥사들과 목회자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대 각성운동이 펼쳐져야 하겠다. 회개를 통한 복음의 회복으

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를 주도해야 하겠다.

결국은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성경에 근거한 생활이 되어야만 한다. 물량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생활개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가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루터와 칼빈, 쾰링거 등 많은 개혁자들이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 하고 명예를 중시하며,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갔을 것이다. 그들과 같은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했을까? 그들은 불길같이 타오르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함의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게 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들과 같은 희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 한국교회의 불의와 타협했던 암울한 시절을 생각하면 기독교의 타락과 수치감에 고개를 들수 없다. 그러나 그시절에 그 현장에 있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 21세기는 우리의 준비된 신앙생활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다면 실추되어 있는 기독교의 명예는 찾을 수 없거니와, 미래의 한국 기독교는 건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칼빈선생과 같이 성경에 충실하며 깊은 기도로인한 영적인 통찰력과 건전한 신학교육으로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경건한 인격형성으로 인한 복음사역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준비되어 있는 목회자들의 배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럴때에 급변하는 과학문명시대에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여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인재 양성에 힘써서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지도록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경적 생활개혁은 목회자 자신이 자기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한 자기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헌신과, 내세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의 활용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목회자에 의해서 생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 참 고 도 서

1. 윌리엄 뉴튼 블레어, 속히 예수 예수민기를 바라나이다, 김승태역, 두란노서원, 1995.
2. 칼빈, 기독교 강요 상, 중, 하권, 김종흠,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공역, 생명의 말씀사, 1989.
3. 포드 루이스 베들즈, 기독교 강요 분석, 양 건, 강명희공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3.
4. 빌헬름 니이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역, 대한기독교 서회, 1991.
5. 조주석, 현대인을 위한 기독교 강요 요약, 나침반 사, 1989.
6. 이형기, 기독교 강요 요약,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7. 홍정길, 한국교회는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가, 두란노서원, 1995.
8. 김영한, 한국교회 목회의 문제와 갱신, 성경과 신학, 1994년, 제16권.
9. 이원규, 한국교회 성장운동의 재평가, 목회와 신학, 1990년 2월호.
10. 한국교회 새로운 성장의 모델을 찾자, 월간목회, 통권194호.
11. 이장식, 기업성 없는 교회성장을 이루자, 월간목회, 1990년 4월호.
12. 김영재,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반성과 갱신을 위한 제언, 제23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논문발표집, 1994년 4월.
13. 교회 연합신문, 1994년 3월 12일.
14. 복음신문, 1992년 6월 7일.
15. 원호식, 가정사역의 이론과 실제, 안양대 신대원 강의안, 1996년.
16. 찰스 라이리, 균형잡힌 신앙생활, 유화자역, 생명의 말씀사, 1991.
17. 유호준, 지원상, 림인식, 한국교회의 성장정체,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3년 12월호.
18. 김영한, 바르트에서 몰트만까지, 기독교 서회, 1993년.
19. 이태웅, 치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0년 1월호.
20. 노봉린, 한국선교 100년의 평가와 새 전략,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0년 2월호.
21. 특별좌담-목회자의 리더십을 진단한다, 월간목회, 통권164권, 1990년 4월호.
22. 김선도, 성장하는 교회 열린목회, 목회와신학, 두란노서원, 1990년 2월호.
23. 최기채, 목회자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월간목회, 1993년 2월호.
24. 정학봉, 성서적 침지이론, 도서출판동서남북, 1991.
25. 제성호,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두란노서원, 1995.